

김제 청년 창업기업 해외시장 진출 돕는다

‘통상마스터Youth’ 참여기업 3월 6일까지 모집

김제시가 지역 청년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돕기 위해 맞춤형 수출 지원사업에 나선다.

김제시(시장 정성주)와 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원장 윤여봉, 이하 경진원)은 '2026년 김제시 통상마스터Youth' 참여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수출 현장에서 통상 문제와 해외시장 개척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 청년 창업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통상마스터Youth’는 풍부한 실무 경험을 갖춘 ‘통상마스터’를 기업과 1:1로 매칭해 수출 전 과정을 밀착 지원

하는 현장 중심 사업이다. 통상마스터는 월 1회 이상 기업을 직접 방문해 △수출 전략 수립 △해외 바이어 발굴 및 대응 △계약·통관·물류 실무 △대금 회수 등 수출 전반을 원스톱으로 컨설팅한다.

지원 대상은 대표자의 주민등록과 사업장이 김제시에 소재한 18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 창업기업이다. 기종일은 2025년 12월 31일이며, 1986년 1월 1일부터 2007년 12월 31일 사이 출생자가 해당된다.

총 8개사를 선발하며, 사업 기간은 2026년 3월부터 11월까지 약 9개월간

운영된다.

선정된 8개 기업에는 △통상마스터 정기 컨설팅(총 9회) △경영·세무·법률·지식재산권·인증 등 분야별 전문가 컨설팅 △해외 홍보물 제작, 해외 인증, 전시회 참가 등 수출 도발 마케팅(기업당 최대 280만원)이 공통 지원된다.

이 가운데 수출 가능성이 높은 3개 기업을 별도로 선발해 △제품 포장·용기 개선 △현지 바이어 방문 및 초청 △해외의 직접 마케팅 등 ‘수출기반 육성 지원’을 기업당 최대 300만원 한도로 추가 지원한다.

김제시는 이번 사업이 제품 경쟁력을 갖추고도 실무 경험 부족으로 수출에 어려움을 겪어온 청년기업의 자생

적 수출 역량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타 지역 거주 청년이라도 선정 후 1개월 이내 김제시로 전입하면 참여가 가능해, 유망 청년 인재의 지역 정착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경진원 관계자는 “현장 중심의 밀착 컨설팅을 통해 청년기업이 실질적인 수출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해외시장 진출을 준비 중인 김제시 청년기업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사업 신청은 2월 23일부터 오는 3월 6일 오후 3시까지 전북특별자치도 수출통합지원시스템(www.jbexport.or.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된다.

/오상근 기자

전북은행 직원, 화재 신속 대응

삼천동지점 봉원동 매니저, 초기 진화로 큰 피해 막아

전북은행(은행장 박춘원) 삼천동지점 인근에서 발생한 노상 화재가 직원의 신속한 초기 대응으로 큰 피해 없이 마무리됐다.

설 명절 연휴를 앞둔 지난 13일 오후, 삼천동지점 앞 도로변에서 영업 중이던 장사 트럭에서 갑작스럽게 화재가 발생했다. 당시 차량 내부에 있던 상인 등 2명이 열 굴과 머리 부위에 화상을 입는 긴박한 상황이 벌어졌다.

이 과정에서 삼천동지점 봉원동 매니저가 지점 내 비치된 소화기를 들고 현장으로 달려가 초기 진화에 나섰다. 불길이 확산될 경우 인근 상가와 보행자, 차량 등으로 2차 피해가 우려됐으나, 침착하고 신속한 대응으로 화재 확산을 막았다.

이후 소방차가 현장에 도착해 완전 진화를 마쳤으며, 화재 발생 약 10여 분 만에 상황은 종료됐다. 다행히 추가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삼천동지점에서 23년째 근무 중인 봉 매니저는 “영업점에서 상황을 확인하자마자 소화기를 들고 현장으로 나섰다”며 “평소 안전관리부의 관리·감독 아래 철저한



안전교육을 받아온 덕분에 침착하게 대응할 수 있었다. 앞으로도 유사한 상황이 발생하면 주저 없이 나선 것”이라고 말했다.

전북은행은 평소 전 직원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안전교육과 비상 대응 훈련을 실시해 오고 있다. 이번 사례 역시 평소 숙지해 온 대응 체계와 현장 판단력이 더 큰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예방했다는 평가가

다. 전북은행 관계자는 “금융기관이 단순한 금융서비스 제공을 넘어 지역사회와 일상을 함께하며, 위기 상황에서도 공동체의 안전을 지키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보여준 사례”라며 “앞으로도 고객과 지역사회의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위기 대응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오상근 기자

‘신기술 활용 비즈니스 모델 개발’ 참여 청년농업인 모집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3월 6일까지 현장 실증 연구 참여 농가 20곳 모집

농촌진흥청(청장 이승돈) 국립농업과학원은 신기술을 도입한 청년농업인의 사업화 역량을 높이기 위해 ‘비즈니스 모델 개발 현장 실증 연구’ 참여 농가 20곳을 오는 3월 6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2025~2026년 국립농업과학원이 개발한 신기술을 시범 도입

한 청년농업인을 대상으로 한다. ‘청년배정 시범사업’ 또는 ‘기술기반분야 시범사업’에 참여한 청년농업인이라면 신청할 수 있다.

참여를 희망하는 농가는 3월 6일까지 해당 지역 농업기술센터를 방문해 신청서와 개인정보동의서를 제출하면 된다. 국립농업과학원은 서면 심사와

현장 심사를 거쳐 최종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 농가에는 △청년농업인 공동체 참여 및 민관 협력 체계 구축 △우수 경영체 대상 대외 홍보 지원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비즈니스 모델 기획과 전략 마케팅 교육 △농기별 맞춤형 진단을 통한 현장 문제 해결 및 전

문가 상담 등 다양한 지원이 제공된다.

국립농업과학원 기술지원과 장성화 과장은 “이번 신기술 현장 실증 연구가 청년농업인의 경영 역량을 높이고 실질적인 소득 증대로 이어지는 성공 사례를 만드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미래 농업을 이끌 청년농업인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오상근 기자

전북테크노파크, 설 명절 맞아 이웃사랑 나눔 실천

전북테크노파크가 설 명절을 앞두고 지역 내 소외계층을 위한 나눔 활동에 나섰다.

전북테크노파크는 최근 노사가 함께 지역 사회복지시설인 삼성휴먼빌을 찾아 물품과 후원금을 전달하며 따뜻한 온정을 전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회공헌활동은 명절을 앞두고 관심과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더불어 사는 지역사회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이웃사랑과 나눔경연을 실천하는 차원에서 노사가 함께 참여해 의미를 더했다.

전북테크노파크는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힘을 보탤 예정이다. 지난 12일 전통시장을 방문해 지역 농·특산물을 구매하고 온누리상품권을 마련해 취약계층 세대에 전달했다.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는 동시에 어려운 이웃을 돕는 ‘상생 나눔’을 실천한 것이다.

이규택 원장은 “설 명절을 맞아 소외되는 이웃 없이 모두가 따뜻한 명절



전북테크노파크는 최근 노사가 함께 지역 사회복지시설인 삼성휴먼빌을 찾아 물품과 후원금을 전달하며 따뜻한 온정을 전했다.

을 보내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번 나눔을 준비했다”며 “이번 활동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상생의 가치를

확산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오상근 기자

제42대 한중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북지원장 취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북지원장은 2월 19일자로 제42대 지원장에게 한중현(56) 지원장이 취임했다고 밝혔다.



한중현 신임 지원장은 서울 보성고등학교와 연세대학교 행정학과(석사)를 졸업했으며, 1994년 제37회 행정고시에 합격해 공직에 입문했다.

이후 농림부 축산정책과와 농촌정책과를 비롯해 기획조정실 정책평가팀장,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업경영정보과장, 경기지원장, 제주지원장 등 주요 보직을 두루 역임했다.

한 지원장의 취임식은 23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북지원에서 열릴 예정이며, 취임사를 통해 향후 전북지역 농정 방향과 기관 운영 방침을 밝힐 계획이다.

/오상근 기자

설 명절 농식품 원산지 표시 위반 40개소 적발

전북농관원, 선물·제수용품 중심 1094개소 대상 일제 단속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북지원(지원장 김민욱, 이하 전북농관원)은 설 명절을 앞두고 지난 1월 28일부터 2월 13일까지 원산지 표시 일제 단속을 실시한 결과, 위반업체 40개소(품목 16건)를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선물·제수용품 중심으로 제조·가공업체와 통신판매업체, 농축산물 도·소매업체 등 총 1,094개소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전북농관원은 특별시범경찰과 명예감시원을 투입해 외국산은 국내산으로 둔갑 판매하거나, 국내 유명 지역 특산물로 속여 판매하는 행위 등을 집중 점검했다.

적발된 위반 품목은 김치류가 9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두부 7건, 돼지고기·닭고기·쇠고기 각 4건, 오리고기 2건, 기타 품목 10건 순으로 나타났다. 위반 유형별로는 거짓표시 20개 업체를 형사건에 자제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

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20개 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 총 597만2천 원을 부과했다.

이번 단속 기간에는 산림청 및 지자체와 협업체 합동 단속을 실시했다. 또한 전북지역 각 시·군 전통시장에서 소비단체, 시장상인회, 특별시범경찰과 함께 원산지 표시 캠페인을 전개하며 지도·홍보 활동도 병행했다.

아울러 지자체와 합동으로 쇠고기 등 축산물이력제 이행 여부에 대해 147개소를 점검하고, 시료 16건을 채취해 분석 중이다. 불일치 업소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김민욱 지원장은 “앞으로도 농식품 원산지 표시 홍보와 점검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며 “원산지 표시가 없거나 거짓 표시가 의심될 경우 전화(1588-8112) 또는 농관원 누리집(www.naqs.go.kr)을 통해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오상근 기자

지구를 시원하게 식혀주는 에너지 절약 실천 방법

1. 사용하지 않는 전기제품은 플러그에서 뽑기
2. 전기세가 많이 나오는 제품 아껴쓰기
3. 겨울철 실내 온도를 20도로 유지하고 내복 입기
4. 전기 사용량이 많은 시간대에는 전기 사용량을 줄이기

▶ 전주매일 에너지캠페인